

분절골 절단술을 이용한 양악 전돌증의 교정

兩顎性 치조골전돌이란 상하악의 전치가 전방으로 돌출되어 있어 긴장상태에서만 입술을 다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악골 자체의 전돌이 반드시 동반되지는 않으나, 만일 치조골 자체의 전돌이 있을 경우는 외과적 술식으로 이를 개선해 주어야 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1935년 Wassmand, 1954년 Cupar, 1963년 Wunderer 등이 발표한바 있는 상하악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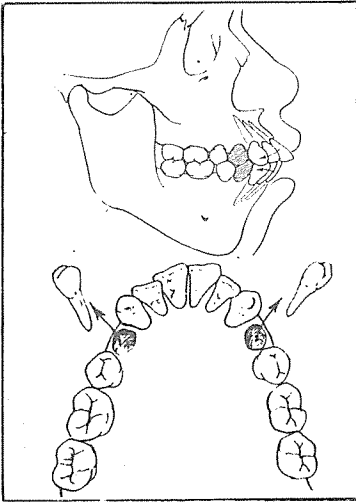


그림 1. 술전 상하악치아의 전돌과 입술이 다물어지지 않는 상태를 보여 주며 상하악 제 1소구치는 치아 재배열을 위해 발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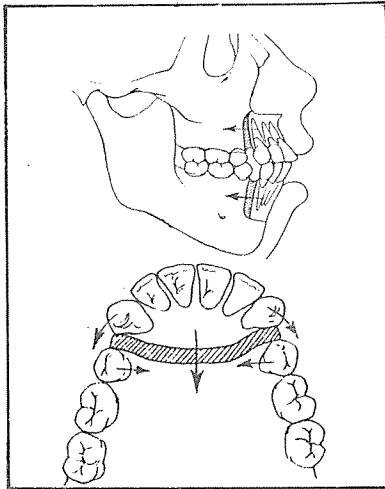


그림 2. 치근단하 부분 골절제술로 치조전방부를 후진시키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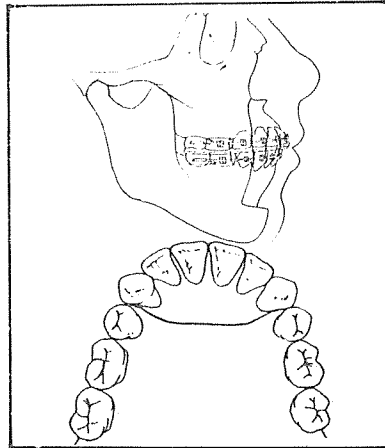


그림 3. 상하악 치조전방부의 재배치가 끝난 모습

1소구치나 제2소구치를 발거후 전돌된 치조부를 후방 이동시키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지면에서는 이러한 방법에 대한 도식적 설명과 실제 증례를 소개하고자 한다(그림 1~5).



그림 4. 兩顎性 치조전돌 환자의 술전 측면 사진



그림 5. 부분 골절제술로 상하악 치조를 재배열한 후의 환자 측면 사진

崔鍾煥 치과기공소

서울·종로구 승인동 1081

전화 : 923-6671 · 923-2998